

철학과 학사졸업논문 작성시 참고원칙(202104)

- 논문 제목 뒤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콜론(:) 기호로 표시.

[예시] 자유에 대한 권리: 민주주의적 삶의 사회적 토대에 관하여

- 본문 장, 절, 절 이하 세부 항목의 번호는 I., 1., (1), ① 등의 순서로 표시.

- 각주 및 참고문헌 원칙

각주에서는 저자와 연도, 페이지만을 표시할 것.

[예시] 김재권(2007), 35.

비에리(2016), 43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 뒷장에 넣고 전체 서지 사항을 아래의 원칙에 따라 제시할 것.

첫째, 참고문헌 작성시, 단행본 제목에는 겹낫표(『』), 논문 제목에는 홑낫표(「」)를 사용한다.

둘째, 참고문헌에 제시할 서지 사항의 순서는 이하와 같다.

저자(출간년도), 『책 이름』, 출판지: 출판사. (←단행본의 경우)

저자(출간년도), 「논문 제목」, 『학술지 제목』, 게재 권/호수, 학회명, 쪽수.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 예시]

- 단행본일 경우:

김태길(1995), 『한국윤리의 재정립』, 서울: 철학과현실사. (←국문저서(단독))

이초식 외(2000), 『귀납논리와 과학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국문저서(공저))

비에리, 페터(2016), 『자유와 기술: 의지의 발견에 대하여』, 문향심 옮김. 서울: 은행나무. (←국문번역서)

(서양저자의 경우 성, 이름 순서로 표시하고, 역자 명은 책 제목 뒤에 삽입)

- 논문의 경우:

길희성(1993), 「열암 철학에서의 한국 불교사상 연구」, 『철학연구』 33 집, 철학연구회, 9-23.